내 영혼의 무게로 승부한다

(다니엘 5:1~31)

22.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24.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25.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26.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27.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28.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29.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30. 그 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 때에 다리오는 육십이 세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내 영혼의 무게로 승부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내 영혼의 무게로 승부한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입니다. 당시에 바사 즉 페르시아는 메대를 정복한 뒤에 바벨론의 영토를 공격하여 점령합니다. 그리고 무려 2년 동안이나 수도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벨사살 왕은 천 명의 귀족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26절 이하에 다니엘이 이 내용을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벨사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라고 하였

습니다. 여기서 우바르신의 우는 그리고의 뜻이며, 바르신은 히브리어 동사의 '조각내다, 갈라지다'라는 뜻을 가진 베레스의 복수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 '끝났도다! 끝났도다! 무게가 너무 가벼워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에 이 사건은 벨사살 왕에게만 적용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써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죄의 수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측정하셔서 그 무게에 맞추어진 삶을 주권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물론 영혼의 무게를 측정한다는 것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영혼은 무게도 없고 단위도 없습니다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 수치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영혼의 무게가 100인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인도하심을 하실 것이고, 영혼의 무게가 1,000인 사람에게는 또 그에 맞추어진 인도하심을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보면 이 세상의 삶이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자기의 왕의 자리조차 강력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왕권이 주어지고 왕위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느부갓네살 왕이 행했다고 여겨지는 위대한 업적들 또한 사실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고 다 이끄시고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주관하시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밖에 안 해주시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무게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투선수의 경기를 보면 체급을 맞춥니다. 우리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영혼의 무게가 플라이급인데 헤비급의 인도하심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모든 의미를 포함해서 삶이 이러한 상태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무게에 따라서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늘 벨사살 왕에게 주어진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씀은 최종선고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가치를 느끼지 못하신다는 것이고, 왕의 영혼의 무게가 무거워질 가능성에 대해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무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영혼의 무게를 어떻게 측정하시는지에 대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영혼의 무게란 비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여겨지고 본래 계획하셨던 뜻을 이루시기에 거리낌이 없는 마음상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1g 가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의사였던 던칸 맥두걸(Duncan MacDougall)은 1907년에 의학 잡지 아메리칸 메디슨에 한 실험의 결과를 게재합니다. 당시에 폐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는데 의사였던 맥두걸은 이들을 관리하던 중 체중을 재면서 특이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체중을 측정하고 죽은 직후에 다시 체중을 측정함으로써 영혼의 무게를 재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비를 준비하여 실험을 했더니 평균적으로 21g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21g의 차이가 생겼으니 이것이 영혼의 무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개 15마리를 이용해 똑같은 실험을 행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개의 경우에는 사망 직전의 무게와 사망 후의 무게에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두걸은 개는 영혼이 없어서 무게에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해 1998년에 길버트 가펜터는 동물들은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벼워서 저울의 최소감지 범위를 벗어났을 뿐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현대에는 이러한 주장들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여겨져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무게를 재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사건이 하나있습니다.
킬로 패션(Kilo Fasc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7-8년 전에 롯데마트 전국매장에서 실시한 판매 전략으로 50만 장의 티셔츠를 2주 만에 팔아치우는 성과를 거둡니다. 옷을 판매한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가격을 정해서 파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판매 전략에서는 옷을 무게로 달아서 판매합니다. 이 옷들을 100그램에 3,000원씩 팔았는데 평균적으로 60-70%싸게 사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했고, 이것이 적중해서 대단한 판매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요새도 이런 킬로 패션 판매 전략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마트의 생선코너에서 조기를 파는데 봉지에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아도 같은 가격입니다. 작은 조기를 담든지 큰 조기를 담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측정하시는 방식이 이와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주머니로 여기십니다. 이 주머니에 담은 대상의 무게를 측정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주머니의 무게가 가벼운지 무거운지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즉 '끝났도다! 끝났도다! 무게가 너무 가벼워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라는 뜻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영혼의 무게를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어차피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진행되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영혼의 무게입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가 발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에 돈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

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돈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는 내 영혼의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돈 문제를 벗어나는 현명한 방법은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무게를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결 방법은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당됩니다. 가족에게 문제가 생겨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끝이 납니다. 이 마음의 무게와 관련된 말씀이 시편 1편 4절에도 등장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람에 날릴 정도로 가벼운 마음이 악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담기는 대로 영혼의 무게가 측정된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무엇을 담느냐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셔 들일 수 있는 크기로 지음 받았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담길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대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예수님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려다보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보다 더 무겁게 느낄 수 있는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지구 전체를 달아보아도 티끌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에 이 지구 전체를 담고 살수도 없습니다. 건강문제, 돈 문제, 가족문제, 직장문제 등의 사소한 것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존재감이 너무나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무게감에는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무게감의 기준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담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원대한 꿈과 비전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었다고 해봅니다. 사람들은 모두 대통령을 우러러봅니다. 대통령의 마음에 담긴 비전이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것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무게감에 대해 무척 실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은 마음과 비교하자면 대통령을 담은 마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벼운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자비가 가득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면 사방팔방을 다 막아서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영혼의 무게를 측정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세상에 대한 비전이나 꿈이나 대단하게 여겨지는 세속적 가치들을 담는다고 해서 마음의 무게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는 세계 제일의 부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재산이 차지하고 있는 무게감도 엄청날 것이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빌 게이츠의 마음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마음은 실로 가볍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지구 전체를 다 팔아서 한 사

람에게 주었다고 한들 그 무게감은 하나님의 무게감에 비하면 티끌인데 빌 게이츠라고 한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일지라도 마음에 가장 무거우신 하나님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적이고 신비한 일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도 이와 같습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라는 이름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그 마음에는 하나님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부자는 세상의 가치를 많이 가진 자였고 마음에도 세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천국에 들여보내셨고 부자는 지옥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치가 오늘 본문에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즉 '끝났도다! 끝났도다! 무게가 너무 가벼워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임하지 못하는 삶은 끝날 수밖에 없고, 죽어서 그 영혼 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사건을 해석하고 나자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귀한 하사품을 내리고 나라의 세 번째 자리에 앉힙니다. 당시의 바벨론 상황을 보면 벨사살 왕은 아버지 나보니두스의 섭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라의 첫째 자리와 둘째 자리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자리에 앉혔다는 것은 왕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이 망해가는 중이었으나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영혼의 무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든지 그 문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다만 내 영혼의 무게에 따라 그 주관하심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영혼이 무거울 때에 삶은 하나님 본래의 계획대로 이끌려져 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혼의 무게를 늘리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결코 21g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측량기준에 의해서 영혼의 무게는 정해집니다. 저울에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저울의 추와 같습니다. 반대편의 접시에는 우리의 영혼이 올라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 저울에 올라가셨을 때에 평형을 이루는 상태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이셨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동등 됨을 취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고스란히 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기대감을 완전히 충족하실 수 있었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저울로 재어본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과 닮아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마음에 담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무게가 평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가 없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라고 탄식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원죄의 성향은 킬로 패션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세상의 가치들을 닥치는 대로 마음에 담고자 합니다. 벨사살 왕의 상태도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벨사살 왕은 단순히 즐겁기 위해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도가 2년 동안 포위를 당한 상태였고, 왕의 마음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들에 술을 따라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종교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전쟁은 나라와 민족이 숭배하는 신들의 대리전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을 술잔으로 쓴 이유는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함을 떠올리며 서로를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포위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자신들의 신 마르둑이 모든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할 것이라 믿고 싶어 했습니다. 이처럼 벨사살의 잔치는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고자 하는 종교적 의미의 잔치였습니다.

한편 이들은 느부갓네살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전달되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조서로 만들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이 분명히 남아있었고 벨사살 왕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며 자국의 민족 신들을 찾기에 열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벨사살 왕의 마음은 가볍게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의 가벼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2년간의 메대와 바사의 포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민족의 신을 섬기기 위한 잔치를 벌이며 더욱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기어이 벨사살을 포기하십니다. 만약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을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라도 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즉 ‘끝났도다! 끝났도다! 무게가 너무 가벼워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라는 최종선고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삶의 상황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동안에 마음은 그것을 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자 돌에 맞아 죽는 상황조

차도 불평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불평이 생기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은 내 마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벨소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영혼의 무게를 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는 하나님 자신이 저울추가 되십니다. 이 저울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에 하나님을 담으면 됩니다. 킬로 패션처럼 세상의 가치를 닥치는 대로 담았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대로 되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담으면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살다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냥 담는 정도가 아니고 타인과 경쟁하며 남들보다 더 많이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벼운 것들로 가득차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은 사라집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크기로 지음 받았기에 다른 것을 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항상 저울추이신 하나님보다 가벼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곧 교제하시며 함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끝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치워버리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환경 탓이 아닙니다. 영혼의 무게를 늘리는데 승부를 걸어야만 합니다. 영혼의 무게를 늘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아무것도 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끊임없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이 마음까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물이 흐르듯이 마음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로마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조용히 살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무슨 큰일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무게를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즉 ‘끝났도다! 끝났도다! 무게가 너무 가벼워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라는 말씀은 벨사살 왕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래 뜻과 계획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문제 앞에서든 영혼의 무게를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분 단위 초 단위로 좁혀가면서 눈과 귀와 손끝을 통해 내 마음을 파고들어오는 세상을 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들어오심이 강물처럼 이어져서 하나님의 본래 계획하신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